동남아 시장개척단, 735만불 수출상담 성과

포천시, 수출판로 정보 얻기 위해 꾸준한 지원

포천시는 9월2일부터 10일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 5개사를 동남아 3개국 3개 도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실시했다.

파견사업에 참가한 관내 기업체는 ▶영진산업(주)(대표 이미자) ▶그린월드(대표 박준홍) ▶(주)동일(대표 정의권) ▶우정(대표 지종민) ▶유진종합식품(대표 강용수) 등 5개사로, 참가 기업들은 8박9일간 총 84건의 수출 상담을 실시해 총 735만불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으며 348만5천불의 계약 협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동남아 시장개척단은 경기비즈니스센터-쿠알라룸푸르 현지 사무소(Gyeonggi Business Center-Kuala Lumpur)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 섭외 및 유력 바이어 발굴 등 수출 판로 개척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계약 성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9월2일부터 10일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 5개사를 동남아 3개국 3개 도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중 두각을 나타낸 영진산업(주)(수성접착제 및 섬유용 계면활성제 제조)는 쿠알라룸푸르 및 호치민 바이어와 86만불을 상담하여 28만불의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수성접착제의 경우 베트남 현지 종이의 질이 나빠 질 좋은 접착제 생산이 어렵다고 해 현지 바이어들이 영진산업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섬유제조협회 회장과 상담을 통해 섬유관련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동일(인삼·홍삼차 제조)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건강보조제품 대형 판매업체인 Easy Pha-max사의 독점판매 요청으로 10월말 직접 (주)동일을 방문할 예정이며 개별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포천 다문화축제 2008 어울마당 10월12일 개최

포천시는 관내 산업현장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하는 제2회 포천 다문화축제 2008 어울마당을 10월12일 오후2시부터 6시시까지 송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문화 콘서트, 지구촌 음식장터, 세계음악 체험, 대동놀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10개 국가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각 국의 음악 및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권상담 및 무료급식 등을 지원해온 지역 내 외국인 봉사단체와 시가 연계해 추진하는 제2회 포천다문화 축제 2008 어울마당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글로벌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하는 제2회 포천 다문화축제 2008 어울마당을 10월12일 송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행복설계 ·①

돈 마술사 되기

아침저녁으로 더욱 차가워진 가을 공기가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열게 하는 날씨에 포천신문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미라입니다.

낙엽 타는 냄새를 그리워하고 이제까지 메말랐던 감정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가을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바람의 노래에 맞춰 리듬을 타는 가녀린 코스모스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나 빨리 가버리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돈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쓰는 시간인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돈 마술사 되기라고 제목을 선택한 것은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읽은 책에서 착안했습니다.

늘 하는 일이 돈과 친밀한 일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고 있는 고객들이 원하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와 혹은 모여진 돈을 잘 지켜나가며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께 본인만의 노하우로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 모두 일한 만큼의 댓가를 돈이라는 재산으로 잘 모으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돈은 정말 좋고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불행하게 보입니다. 모두 똑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을텐데 어떤 이들은 왜 부자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스스로의 생각에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을 적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열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우린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열 가지를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적고 나면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려는 일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저 많이 하려고만 하죠. 소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지 알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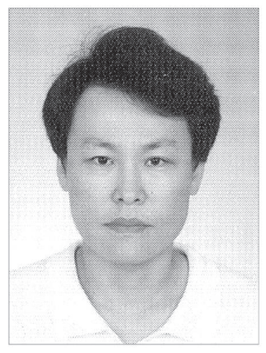
무엇이든 해 보기 전까지는 미리 판단하지 않기..어떠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제대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미라
금호생명 포천지점
비젼센타실장
031-536-1473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⑰⑥ (주)삼성필름

시공사가 인정한 삼성인테리어필름

포천시, 이전개업으로 생산 가속화



대표 송재식

현재 국내 인테리어 필름 시장은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공간이나 다양한 소품 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별도의 큰 공사 없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 필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점착(粘着)력이 뛰어나고 하자율이 없는 제품 생산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 온 (주)삼성필름(www.samsungfilm.co.kr)이 2007년5월5일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061-10번지에 이전개업하고 '삼성인테리어필름'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수출을 목표로 점착기술과 360여가지 제품으로 승부

인테리어 필름이란 PVC시트 후면을 점착처리해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다.

인테리어필름의 장점은 경제성과 편리성 그리고 내구성과 방염성이라고 말한다. 기존 표면 마감재와 비교하여 사용이 간편하여 작업일정 단축이 가능하며, 작업의 정밀성이 향상된다. 또한, 사용 중에 변경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간단히 변경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다.

평면이나 굴곡면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수점착처리가 되어 있어 시공성 면에서도 탁월하며 편리하다.

충격이나 마찰, 긁힘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며 열, 온도, 습도의 변화에 대한 차수안정성 및 용제, 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내오염성이 우수하다.

삼성인테리어필름은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는 방염인증 검사에서 방염인증을 획득하여 불이 잘 붙지 않는 화재 예방 효과와 함께 화재 발생시에도 불에 잘 타지 않고 연기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화재 시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인테리어 필름의 생산 공정은 이형지, 점착코팅, Base필름, 인쇄층, 투명필름, 표면처리 순으로 제품이 완성된다. 생산 공정 중에서도 점착코팅은 제품에 점착력을 입히는 기술인데 제품에 점착력이 부족하면 시공한 곳에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이 우선으로 여기는 기술이다.

(주)삼성필름은 점착코팅 기술향상에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점착력을 좋게 하는 공법을 개발하여 시공자가 선호하는 제품으로 거듭났다.

또한, 360여 가지가 넘는 독특한 칼라와 디자인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400여가지 새로운 칼라와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품생산준비를 하고 있다.

(주)삼성필름의 송재식 대표는 '삼성인테리어필름'이 짧은 기간에 시공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된 이유에 대해 "강한 점착력과 36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디자인을 손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 수입제품에 의존하던 시대에 소량이 수입되어 높은 가격에 국내에서 시공되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인테리어 필름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로 이제는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다.

송 대표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삼성인테리어필름'의 우수성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주)삼성필름이 포천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리점문의 : 031-534-8100(代)

조성구 기자 cho2182@paran.com

(주)삼성필름 포천공장 전경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경험을 하였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2)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3)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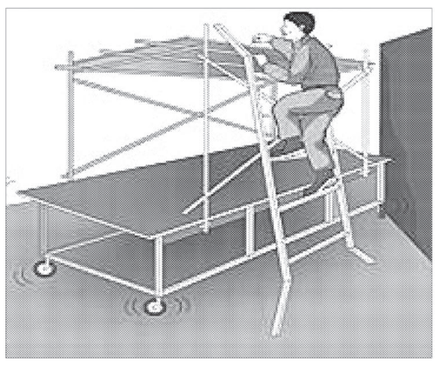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사다리로 이동식비계 승강 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

2007년2월O일 14:30분경 공장 기타 상하수도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OO페인트 소속 피재자(도장공, 남51세)가 공장 창고동 건물측면 벽체상부도장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식비계상부로 사다리를 대고 승강하던 중 이동식비계 하부 바퀴가 굴러 미고정된 사다리의 상부가 이동식비계로부터 이탈된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바닥으로 추락(높이 약2.5m)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이동식 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및 승강용 사다리 미고정

•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할 시에는 바퀴구름방지장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사다리로 승강하여야 하나 바퀴를 미고정, 승강용 사다리는 이동식비계에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미고정

나. 개인보호구 미착용

• 이동식비계 등 고소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식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및 승강용 사다리 고정 철저

•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할 시에는 이동식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구름방지장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사다리로 승강하여야 하고, 승강용 사다리는 이동식비계에 고정 설치하여야 함.

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이동식 비계 등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26-6091)

국민연금 Q&A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

▶개정내용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장애연금수급권 인정

▶Q&A

고객: 회사 취직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개월 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그 질병이 가입 전에 발생했더라도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으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더라도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